

“새터민 포교, 통일 한국 이끄는 길”

불교 새터민 포교 새장 선도하는 '통일바라밀숲'

새터민 조정덕(38, 한국외대 재학) 씨는 늦깎이 대학생이다. 달북해서 남한에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다. 또한 늦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새터민과 결혼하게 됐다. 낯선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니 기대와 설렘,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든든하다. 어머니와 같은 불교 단체 '통일바라밀숲'의 지원이 있어서다.



통일바라밀숲 소속 새터민 대학생들이 낙산사를 참배하고 있다. 통일바라밀숲은 새터민 대학생 33명에게 매월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새터민 포교에 앞장 서고 있다.

새터민 지원단체 '통일바라밀숲(공동대표 남지심, 배광식, 임성수)'가 불교계의 새터민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새터민 대학생 장학금 및 사회적 후원을 위해 2013년 5월 결성된 '통일바라밀숲'은 현재 33명의 새터민 대학생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통일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기도 했다. 3명의 새터민을 지원하면서 시작했던 처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남지심 공동대표는 “새터민 청소년·대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통일 이후 남북을 잇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결성했다”면서 “불교적 숫자인 '33'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세웠는데 이뤄졌다. 여기에 첫 기혼자가 생긴다니 기쁘다. 그들에게는 내가 보호자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통일바라밀숲은 단순 지원만 하는 것이

달북 대학생 33명 매월 지원
전학·사찰 탐방 등 사업 진행
10월 31일 1호 기혼자 탄생
지난 8월 통일부 단체 지정도

아니라 교육·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터민 대학생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통일바라밀숲의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정기모임 △매월 장학금 지원 △한국 근현대사 강좌 △각계 각종 사회 저명 인사 멘토링 △1:1 얼마 인연 맺기 △한국 문화재 답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한국어 및 글쓰기 교

육 △문학창작집단 바미 수강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 등이다.

새터민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결연을 통한 보시를 통해 이뤄진다. 잠실 불광사, 천안 천불사는 운영 초기부터 지원을 해왔고 조계사, 봉은사, 낙산사, 불영사, 운문사 등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남지심 공동대표는 “새터민들의 80~90%는 개신교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회를 찾는 새터민들에게 월 40만원의 생활비와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신교의 선교 공세는 부정적으로 본다. 불교는 새터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통일바라밀숲 공동대표 남지심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불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터민 포교는 개인 원력이나 일부 사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 한국을 위한 중요한 계층 포교의 지점이지만 뚜렷한 중심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지심 공동대표는 “새터민 포교는 통일 한국을 이끄는 중요한 불사”라면서 “중단 차원에서 새터민 포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통일바라밀숲의 새터민 포교에 스님과 불자들의 후원이 많이 됐으면 한다”면서 “현재는 33명만 지원하고 있지만 후원이 늘어난다면 108명까지 지원하고 싶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취업난 극복위해 '오작교' 되다

10월 22일 제5회 종로구&조계사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난 극복을 위해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구인구직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취업 및 채용 사이 맞춤형 '오작교' 가 된 것이다.

서울 조계사는 10월 2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5회 종로구&조계사 일자리나눔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조계사는 종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합심해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12개 기업서 참여해 약 40개 일자리가 소개됐다. 참여기업은 △서울여자간호대학 휴먼케어-급식조리원(1명) △한국고용복지센터-현장노무직(10명) △시니어엔파트너즈-콜센터상담원(10명) △종로노인재가복지센터-재가요양보호사(3명) △에스디상사-주차관리원(3명) △풀무원녹축 종로지사-배달원(5명) △조계종국제전법단-간사(1명) △조계사-제사공양팀(2명) △범어사 청련암-공양주(1명) △삼원사-공양주(1명) △사재병원-조리사 및 조리원(각 1명) △공평아트-주방보조(1명) 등이다.

구직자들은 박람회에 마련된 부스에서 순서에 따라 구직컨설팅, 채용면접, 취업교육안내 및 홍보, 사은행사, 상담 및 홍보 등에 참여했다. 한설(여·56)씨는 “취업교육 안내 부스에서 사무직 경력을 얘기했더니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몇 곳 소개해줬다”면서 “다음 박람회 업체 선정시에는 시니어들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종을 고려한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박람회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영중 종로구청장이 직접 일일상담사로 나섰다. 지현 스님은 “80세 노인이 안타까운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구직 상담을 하는데 마음이 아팠다”며 “앞으로 불교계가 사회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도움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10월 처음 시작해 올해로 5회째 맞는 채용박람회에서 누적합계 약 150명, 약 37%가 구직에 성공했다. 총 방문객은 320명에서 시작해 4회차에는 450명에 이르며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다. 박아름 기자



서울 조계사는 10월 2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5회 종로구&조계사 일자리나눔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흥천어린이집, 국토부 선정 '올해 한옥상' 영예

10월 12일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성북구청장, 회주 정념 스님에 감사패 수여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흥천사(회주 정념) 부설 흥천어린이집이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 '올해의 한옥상'을 거머쥐었다. 사진은 흥천어린이집 전경.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흥천사(회주 정념) 부설 흥천어린이집이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 '올해의 한옥상'을 거머쥐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을 발표하고 '올해의 한옥상'에 흥천어린이집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31일 대한민국한옥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접수된 6백여 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다.

흥천어린이집은 연면적 591㎡로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 포함 약 22억 원이 투입되어, 2014년 4월 1일 착공 후 1년 만인 2015년 4월 26일 완공했다. 흥천사 측은 “원래는 고풍한 한옥 형식의 현대식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전통사찰에 어울리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정념 스님 뜻

에 따라 설계를 다시 했다”며 “이에 따라 국비 및 시비로 총 예산 19억 5천만 원에 사찰 기부금 약 3억원을 추가 투자해 전통한옥양식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최초 한옥 어린이집 건립으로 성북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10월 18일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흥천어린이집을 설계한 김용미(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함께 이뤄졌다.

정념 스님은 “서울 최초 한옥양식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감사드린다”며 “어린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편히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사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삼보회, 2기법사·7기포교사 품수식 봉행

10월 18일 삼보정사서... 법사 8명, 포교사 13명 배출

군법당·병원·도심포교원 등 포교 사각지대서 불법 수호에 앞장설 포교사와 법사가 새로 탄생했다.

(사)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박호석, 이하 삼보회)는 10월 18일 서울 성북구 삼보정사서 제2기 삼보법사와 제7기 삼보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다.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을 증명법사로 모신 이번 품수식을 통해 삼보법사 8명, 삼보포교사 13명이 탄생했다.

삼보회는 2002년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을 창설하고 현재까지 약 120명 삼보포교사를 배출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기존 포교사 과정과 별도로 최고위 법사과정을 창설, 2년 이상 포교경력을 보유한

포교사 및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삼보법사 품수를 인정해왔다.

특히 삼보법사는 사이버 교과과정 중 10개 과목 및 특별강의에 대한 이수·심사를 거쳐 배출된다. 2012년에는 13명이 제1기 삼보법사로 품수받은 바 있다.

올해 탄생한 제2기 삼보법사는 유선재, 황외숙, 김진규, 김해식, 이한봉, 최현주, 한병일, 이원규씨다. 삼보회 측은 “8명 법사들은 선일 법사 및 포교사와 연대해 포교 사각지대인 군·병원·도심 등에서 활약할 예정”이라며 “인력수급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포교 방법과 공간 창출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행 四天도 四天의 四天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 성지: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연내용: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봉술·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템플라이프(유료):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선무도 공연◆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 수련원◆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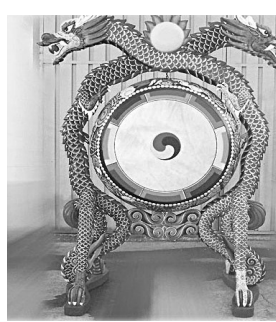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 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